

## 진정한 삶의 체험

---

김 용 현

### 「학력사항」

- 대구 대륜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 외교학과 졸

### 「경력사항」

- 현) 평화외교기획단장
- 주케냐 2등서기관
- 주미국 2등서기관
-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 행정관
- 주중국 1등서기관
- 한미안보협력과장
- 주뉴욕 영사
- 주이라크 공사참사관(아르빌 연락사무소장)
- 한반도평화교섭본부 부단장

---

### I. 머리말

남다른 인생의 경험도 없고, 특별히 힘든 시련을 극복하고 고시에 합격한 것도 아니어서, 단지 수석합격이라는 이유 하나로 합격기를 쓰도록 요청받았을 때 적잖은 부담을 느꼈다. 그러나 나 또한 고시 선배님들의 합격기를 통하여 처음 고시에 입문하게 될 때에는 귀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수험생활 동안 간간히 본 합격기를 통하여 나태해지고 느슨해지는 생활을 다시금 독려할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한 일종의 보답으로 이 글을 쓰기로 마음 먹었다. 하지만 나의 소박한 바람이 얼마나 달성될 지..... .

어쨌든 이 글을 쓰는 목적은, 첫째 외무고시에 관심을 가지고 처음 공부를 시작하려는 이에게 어느 정도의 정보를 주고자 함이요, 둘째 이미 수험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에게 자신감을 주려는 것이며, 셋째는 개인적인 것이지만 나 자신의 수험생활을 정리해 보고 앞으로의

새로운 출발에 있어 하나의 밑거름으로 삼아 보고자 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글이란 필자의 치열한 삶의 체현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우리나라를 떠돌아다니는 독자에게 진정한 호소력을 갖는다고 볼 때, 모두에서 말한 바 남다른 일생의 경험이 없고, 치열하게 삶을 살아 오비도 않은 나의 글이 그리 호소력을 가지지라 생각하지 않지만, 위의 세 가지 목적에 맞추어 부끄러운 작업이나마 고시공부와 관련하여 나의 이야기를 하려 한다.

## II. 나의 삶과 외교관

### 1. 소년기(1965. 1.~1983. 3.)

나는 1965. 1. 5. 대구에서 출생했다. 조금은 내성적이고 소극적이던 나는 외교관이라는 직업은 나와 무관한 것으로 여기고 베토벤이나 기타 음악가들을 존경하면서 장차 의학을 공부하여 인류의 복지향상에 기여하리라 생각하며 국민학교와 중학교를 마쳤다. 중학교 2~3학년시절 의사가 되기로 내 인생의 행로를 어느 정도 확정해 두고 의학 백과사전 등을 탐독하던 것을 지금 생각하니 묘한 감정마저 생긴다.

1980년 대륜고등학교에 입학하여 1학년 중에는 계속 의사가 될 생각이었으나, 2학년 문·이과반 구별시 삼촌의 권고와 또 다른 운명적 사정으로 문과로 가게 되었고, 이때부터 표류하여 마침내 다다른 곳이 외교학과의 선택이었다.

돌이켜 보건대, 중학교 시절보다 오히려 고등학교 2~3학년 시절이 나에게서 더 목표의식이 없었던 때가 아니었던가 기억된다. 솔직히 말해 고등학교 2~3학년 시절은 인생의 뚜렷한 목표의식 없이 그저 학력고사 시험준비를 하던 때였던 것 같다. 그 때의 생각으로는 오랜 동안 생각해 왔던 의사의 꿈이 무산되고 표류하는 가운데 어느 학과라도 선택할 수 있는 성적을 우선 받아 보자는 계산이었던 것 같다(당시는 선시험 후지원 체제였다).

요컨대, 소년시절 외교관과 나는 무관한 것으로 여겼고, 다만 바깥세계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는 점과 인류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겠다는 막연한 생각이 외교관으로의 인생행로를 정향시켜준 기초적 요인이 아닌가 싶다.

### 2. 대학생활 전기(1983.~1985. 7.)

이렇게 표류하여 결국 안착한 곳이 서울대학교 외교학과였다. 외교학과를 선택한 것은 중·고교시절 외국어 공부에 가장 흥미를 느꼈다는 점과 바깥 세계에 대한 막연한 동경, 국제정치학과 공부에 대한 막연한 관심이 어우러져 빚어낸 역사의 우연이었다.

이렇게 출발된 대학생활은 또 다른 진정한 표류를 가져왔다. 외무고시를 보아야 한다는 막연한 압박감 속에 자유분방한 대학 1년을 무위로 보낸 것이다. 학내 분위기와 고시공부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의 부조화 속에 별반 재미없는 대학생활을 보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당시 나는 외무고시 시험과목 정도는 알고 있었고, 고시공부와 학교생활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에 골몰했다. 학교생활과 절연된 편협한 고시생이 되고 싶지 않았고, 또한 학내분위기에 휩쓸려 대학 졸업시 아무런 성취없이 사회에 나가기도 원치 않았다.

1학년 겨울방학부터 영어와 독어를 특별히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 이외에는 3학년 1학기 마치고 군입대하기까지 별다른 고시공부를 하지 않았다. 장기계획을 세우고 일차적으로 학교강의에 충실하여 외국어 공부에 관심을 가진 것이 전부였다. 외무고시 합격의 관건이 외국어 두 과목의 확실한 준비와 경제학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선적으로 독어에 치중했다. 사실 나는 대학 졸업시까지 거의 한 학기도 빠짐없이 독어수강을 하였다. 이 시기에 해 둔 기초작업이 군제대 후 쉽게 합격하게 된 확실한 밑거름이라고 생각된다. 외국어 공부는 결코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조금씩 체득한 단어와 표현법들이 시간에 의해 익혀져 가장 확실한 실력으로 시험에서 나타난다고 나는 확신한다.

대학 1, 2학년 때의 나의 전략은 이러했다. 영어와 제2외국어 하나 정도는 외무고시를 하든 하지 않든 간에 장차 긴요하리라는 계산에서 꾸준히 하였다(사실 나는 불어와 사반아어 도 조금 수강하였는데, 불어공부는 영어공부에 큰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전공인 국제정치학은 학교강의를 들음으로써 기초작업이 충분하리라 여겼고, 이것은 나중에 시험을 볼 때 중요한 기여를 했다. 틀에 짜여져 있지 않은 과목이고, 어느 정도 막연한 측면을 강의 통해서 이해하는 것이 요긴하리라 생각한다. 시중에 나온 책 몇 권 읽고 암기해서 시험에 임하려는 자세는 적어도 국제정치학 과목에 있어서는 피하는 것이 좋으리라 여겨진다. 그 다음으로, 여러 강의 수강 계획을 외무고시를 염두해 두고 수립했다. 이 정도가 대학 1, 2학년 때 내가 취한 외무고시 대응책이었다.

요컨대 대학생활 전반기는 대학생활에 부적응하므로 인한 표류와 구체적이지 못한 외무고시 대비로 인한 졸업내 합격이라는 최초 계획의 수정 등 한마디로 암증모색, 기초작업을 하던 시기였다. 외교관이 되어야겠다는 뚜렷한 목표의식보다는 의미 있는 대학생활을 영위해야겠다는 생각과 전공학과와의 결합, 외무고시 준비와 건전한 한국대학생으로서의 생활을 병행시키고자 하였던 것이 나의 대학생활 전반기였다.

### 3. 군생활(1985. 7.~1987. 10.)

대학 졸업 이내에 합격하기가 힘들 것으로 판단, 군에 입대하기로 마음을 정한 것은 1984년 가을 대학 2학년 2학기도 얼마남지 않은 때였다. 이 결정은 별반 목표의식 없이 막연히 외무고시에 합격해야겠다는 다소 무기력하게 끌려가는 듯한 생활을 반성하고 새로이 출발하기 위한 시간을 가지고 싶었던 일종의 도피였다.

만약 외교관이 되려는 생각이 확고히 수립되어 일이 순조롭게 되어 간다면 군복무기간 동안 1차시험이라도 합격하고 제대하면서 최종합격해 보겠다는 야심도 내신 가지고 1985년 7월 여름의 퇴약별을 받으며 논산훈련소에 입소했다.

군복무시 책을 잔뜩 싸가지고 내무반에 두기도 하였으나 뜻대로 공부는 하지 못하고 국방부 시계는 어김없이 돌아 1987. 10. 제대를 하게 되었다. 군생활 동안 얻은 것은 주로 정신적인 것이었다. 군생활 동안 독어공부와 영어공부 정도는 조금씩 할 수 있었으나, 보다 중요한 것은 대학 1, 2학년 시절 혼돈스러웠던 생각들이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생활을 보다 여유있는 마음으로 보게 되었다는 점과 매사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모든 일을 확고한 신념으로 끝까지 밀어 붙여야 한다는 확신감도 얻었고, 체력을 향상시킬 수도 있었다. 체력이 바탕됨으로 해서 매사에 자신감이 생기고 추진력도 얻을 수 있지 않았나 생각된다. 이 때 만난 귀여운 아가씨도 나의 생각을 전환시키는데 큰 공헌을 했다고 기억된다.

군생활 동안 나의 직업으로 외교관을 택해야겠다는 생각을 굳혔고, 수험기간을 제대 후 2년으로 잡았다.

#### 4. 대학생활 후기(1987. 10.~1990. 2.)

군을 제대하면서 한편으로는 구체적인 시험공부에 있어서 접근한 점이 없었다는 후회도 있었지만, 보다 성숙된 정신자세를 얻게 되었다는 점에 만족하고 1987년 10월 대구로 내려왔다.

지금 돌이켜 보니 그 때의 나는 이전의 나와 다르게 변모해 있었다는 것을 확연히 알 수 있다. 외무고시에 대한 뚜렷한 목표의식을 갖게 되었고, 따라서 공부가 오히려 재미있을 정도로 잘 진행되었다.

1988년 1월에 있을 것으로 예정된 외시 1차시험은 2차과목 준비도 미흡하고 1차 자체에 대한 준비 시간도 부족하리라 판단, 대구에 내려온 후 바로 독일어 학원에 나갔다. 또 korea Herald를 정기구독하기 시작했다. 매일 korea Herald의 제8면 Opinion란을 꼼꼼히 읽어보고 단어장을 작성해 나갔다. 간간이 Time지도 사보면서 korea Herald와 비교해 보았다. 제대한 이후 공부는 독일어와 영어공부가 주된 것이었고, 제22회 외시 1차를 시험삼아 응시하기 위해 한국어·문화사도 읽었다.

제22회 외무고시는 1988년 1월 27일 강남의 모 중학교에서 실시되었다. 1차시험을 보기 약 보름 전부터 헌법·한국사·문화사와 정치학을 문제집 위주로 1독 하고서 시험에 임하였는데, 여기서 얻은 교훈은 시험에 있어서 자신감과 1차시험 문제집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인식이었다. 기대는 전혀 하지 않은 시험이었으나 의외로 시험을 잘 본 것 같아 내심 합격하여도 걱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2차시험 준비를 1년에 바로 하여 확실하게 합격하기는 힘들지 않겠느냐는 판단과 당초의 계획에도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행히도(?) 불합격이었다. 그러나 점수를 확인해보니 평균 0.5점이 미달된 점과 시험당시 가졌던 자신감으로 의욕은 충천하였다.

제22회 외무고시 1차시험을 치른 후 1988년 2월 복학을 1개월 앞두고 매일 꾸준히 특히 시사적인 내용 중심으로 읽어나가고, 동시에 단어·속어 및 중요표현법을 정리해 나가기 시작했다. 독어는 학교강의(시사독어, 독작문)를 들으며 독해와 작문에 신경썼다. 이렇게 일차적으로 영어와 독어를 매일 꾸준히 한다는 방침 아래 우선 나에게 있어 가장 큰 문제거리인 경제학의 공략에 착수했다. 결과적으로 시험성적은 가장 저조했지만 2년 수험기간 중 가장 많이 공부한 과목이 경제학이 아니었나 싶다.

1988년 2월 한달 정도 김대식 외 2인 공저 경제학원론(박영사 간)을 대충 통독하고 곧바로 시내 종로고시학원에서 미시경제학을 한달간 수강했다. 이 두달간의 노력이 경제학에 대

한 기초확립에 많은 도움이 된 것 같다.

복학을 하고서 모든 수강신청을 외시과목 맞추어 하였고, 강의를 최대한 활용하려 하였다. 기타 청강도 하려고 하였다.

2년 가까이 줄곧 고시원에 기거하였으나 공부장소는 주로 학교 도서관을 이용했다. 아침 식사 후 곧바로 학교 도서관 열람실에 자리를 잡아 강의도 듣고 공부공간에 교과서를 계속 읽어 나갔다. 저녁식사 시간에 맞추어 고시원에 돌아와 식사 후 방에서 독서를 하였다. 휴식과 공부시간을 최대한 적절히 배분하고자 하였다. 즉 오번에 학교 도서관에서 4시간 가량 정독으로 독서를 하고 강의시간에는 부담없이 머리를 식히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면서 휴식을 취하고 식사 후 1시간 휴식, 3~4시간 독서하는 체제를 택했다.

생각건대 장기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하루 이틀 무리하는 것은 금기이다. 충분한 숙면과 휴식을 취하고 그 이외의 모든 시간을 공부에 할애하는 것이 나의 방법이었다. 나로서는 오전 3~4시간 공부시간이 가장 효율적이었으며, 이 3~4시간을 정독하고 나면 거의 탈진되다시피 했다. 그래서 오후에 점심식사와 충분한 휴식 후 통독하고 편이었고 저녁시간에 또 다시 정독하는 편이었다. 또 장기적인 꾸준한 공부를 위해서 주말을 완전히 쉬는 방법을 택했다. 일주일 중 5~6일은 열심히 독서하고 일요일은 TV시청도 하고 밖으로 놀러도 다니며 완전히 상반된 방법을 택하였다.

지금 결과적으로 볼 때 나에게서는 적합한 방법이었던 것 같다. 다시 말해, 할 때는 집중적으로 독서에 빠지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차라리 휴식하는 것이 다음의 독서에 효과증진에 도움이 된 것 같다. 돌이켜보면, 나에게 있어서 공부한 시간은 그리 많지 않지만 일단 독서를 할 때에는 온 정신을 집중시켜 흡수가 잘 된 것이 아닌가 싶다.

이렇게 근제대 후 의욕적으로 복학하여 외시준비와 학교수강을 병행 별 무리없이 공부를 진행시켜 1989년 1월 1차시험, 그리고 1년 후인 1990년 2월에 2차, 4월에 3차 면접시험을 보게 되었다.

### Ⅲ. 외무고시, 나는 이렇게 했다.

#### 1. 1차시험(제23회 외무고시)

외무고시는 외국어 두 과목에 자신이 있으면 비교적 쉽고 안전하게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닌가 생각된다. 뒤집어 생각하면 외국어가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만큼 또 힘든 것이 아니겠는가 여겨진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이 영어와 제2외국어의 장시간에 걸친 준비이다. 1차시험에 바로 담벼들기 보다는 외국어 공부와 경제학 공부를 어느 정도 하고 난 후에 1차시험 준비에 임하는 것이 짧은 기간내에 안전하게 합격할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된다.

영어는 비교적 덜 부담된다 하더라도 제2외국어는 단기간에 습득하기에는 부담되는 과목이고, 경제학도 미시·거시·국제경제 부문으로 서로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리라 본다. 따라서 이 3과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기도록 먼저

공부하는 것이 나와 성 싶다.

나의 경우 대학 1, 2학년 때는 영어와 독어공부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고, 제대한 이후 영자신문을 보고 독어학원강의를 들으며 실제적인(current, actual) 영어와 독어에 대한 감을 확실히 잡으려고 노력하였다.

이러한 전제하에 1~2년을 공부기간으로 잡으면 합격이 무난하지 않겠나 생각한다. 나의 경우 1988년 2월부터 곧바로 경제학 공부에 전념했고, 국제법 과목을 그 다음 순위에 두고 1차시험을 보기 전까지 4과목(영어, 독어, 경제학, 국제법)은 전체적인 윤곽을 파악한다는 계획으로 하였다.

내가 해본 1차과목 공부는 이리하다.

첫째, 헌법과목에 있어서 기본교재는 권영성 저 「헌법학원론(법문사)을 선택하였고, 권영성·민경식 편 「객관식 신헌법(경세원)과 김영추 편 「객관식 고시신헌법(고시원) 두 권을 문제집으로 삼았다.

전반적인 1차시험 준비는 10월부터 본격적으로 매달렸다. 주로 문제집 위주로 두 서너번 읽어 보는 식으로 하였다. 김영추 문제집은 앞 부분에 요약이 알기 쉽게 되어 있어서 정리용으로 좋았다. 권영성·민경식 문제집은 주해석이 잘 되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23회 시험에는 사례를 물어 보는 식으로 몇 문제 나왔는데 교과서를 읽을 때 각주를 주의해서 사례도 이해·기억함이 필요한 것 같다(90점 득점).

둘째, 한국사는 이기백 저 「한국사신론(일조각), 변태섭 저 「한국사통론(삼영사)을 기본서로 보았고, 문수홍 편 「한국사연습(구문사), 변태섭 편 「국사요해(삼영사)를 문제집으로 보았다. 암기보다는 전체흐름을 한국사에 대한 애착과 관심으로 파악하려 했다. 마지막에는 문제집만 보았다(85점).

셋째, 문화사는 조좌호 저 「세계문화사(박영사), 이민호·신승하 저 「세계문화사(대명출판사), 동양사학회 편 「개관동양사(지식산업사)를 기본서로 삼고, 조좌호·김창수 편 「세계문화사연습(경세원), 이민호 편 「객관식 문화사(삼영사)를 문제집으로 삼았다. 중국사에 대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 같다(80점).

넷째, 정치학은 이극찬 저 「정치학(법문사), 김운태 저 「정치학원론(박영사), 서울대 정치학과 편 「신정치학개론(서울대 출판부)을 기본서로, 백상건 편 「객관식 정치학(박영사), 이철영 편 「객관식 정치학(법지사)을 문제집으로 보았다. 국제정치 부문도 출제되므로 미리 국제정치학을 공부해 두면 2차시험 준비도 되고 편리하다. 정치학은 기타 여러 책을 통해서 폭넓은 공부를 평소 해 두는 것이, 다시 말해 기초지식이 많아야 유리하다(90점).

다섯째, 영어는 이재옥 저 「TOEFL 연구(소명사), 이봉삼·김인식 「아카데미 TOEFL(아카데미 문화사), 「Vocabulary 22,000·Vocabulary 33,000 정도가 교재가 아닌가 싶다. 나로서는 1차 영어에 대비해서 달리 준비한 것은 없다. 다만 객관식 문제에 적응하기 위하여 마지막에 「아카데미 TOEFL을 과거에 표시해 둔 부분만 풀어보았다. 나는 평소 독해 위주로 Herald 신문과 Time지를 계속 읽고 단어를 정리해 두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92.5점).

앞에서도 지적한 바 있지만 1차시험에 있어서 문제집의 중요성은 거의 절대적이라고 나

는 생각한다. 우선 기출문제를 풀어보아 고시에 나오는 문제의 성격을 빨리 이해하고, 많은 문제들을 다뤄 보는 것이 좋을 듯 싶다. 나의 경우 기본서는 제1독은 통독으로, 그에 바로 연이어 문제를 꼼꼼히 풀어본 후 문제번호 앞에 난이도 내지 중요성을 반드시 체크하여 후일 참고하였고, 문제집을 보면서 생각나는 대로 기본서를 참조하였다. 결국 전체적으로 체계적인 이해를 하게 되면 기본서는 정독을 1회독 정도 더해 주는 것으로 족하지 않을까 싶다. 그런 후 문제집을 다시 보게 되면 독서 속도도 무척 빨라지고 회독수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 2. 2차시험(제24회 외무고시)

제23회 1차시험 준비는 흔들림이나 불안감없이 착실히 되었다. 한마디로 완전한 정신집중 속에 숨이 물을 빨아들이 듯이 문제집의 내용을 흡수했던 것 같다. 후회없고 미련없는 1차 준비였다. 그러나 막상 시험을 보고난 후 견잡을 수 없는 불안감에 빠졌다. 동대문의 한 양공고에서 시험이 있었는데 발이 얼어 붙었고 도무지 집중이 안 되며 뭐 하나 속시원히 풀리는 문제가 없었다. 간신히 마치고 밖에 나오니 정신이 아연했다.

1차 합격자 발표가 나고 며칠간 대구에 내려가 있다가 아무런 준비 없이 분위기를 익히기 위해 2차 시험장에 나갔다. 구체적인 목적이 있었다면 영어와 독어실력이 어느 정도 되나 한 번 평가받고 싶었던 것이었다.

느긋한 마음으로 시험에 임하였고 마음 편하게 끝까지 시험을 다 보았다. 매과목 2시간을 끝까지 앉아 알든 모르든 시간대로 작성하였다. 나중에 성적을 확인한 결과 영어 85.33, 독어 78.00 기타 과목도 과락을 면한 점수여서 확실한 자신감을 얻었던 중요한 경험이었다.

1989년 3월 신학기가 시작되었고, 이번 학기는 나의 마지막 학기이기도 했다. 독어 강의 들다가 우연히 외시 준비를 하는 Y씨를 만나 같이 정보도 교환하고 앞으로 group study도 하기로 하여 그 뒤 P와 이번엔 외시에 합격한 K씨도 합류해 우선 독어 study를 시작하였다. 교재는 『Tatsachen Korea』였다. 제23회 독어시험이 대부분 한반도 문제 관련 시사성 내용이었으므로 나의 제의에 의해 위 교재가 채택되었다. 그 후 여름방학을 맞아 study는 중단되고 나는 대구로 내려갔다. 대구의 뜨거운 여름과 또 아르바이트로 인하여 거의 공부를 못하고 두 달 정도를 보냈다. 이 여름동안 이형순 「거시」와 안승철 「국제경제」, 백경남 「국제관계사」, 오기평 「세계외교사」, 김상준 「국제정치이론Ⅱ」, 박홍립 「경제학이론」을 1회독 통독하였고, 독일어 「종합독문해석연구」를 1회독 정도 다시 보는 것에 그쳤다. 무덤고 힘든 여름이었다. 또한 이 여름으로 인하여 그 뒤 9월 중순 상경하여 공부하는데 계속적으로 시간적 압박감과 불안감에 애태우게 되었다.

9월 중순 추석을 대구에서 보내고 마지막 결전을 위해 신림동으로 복귀했다. 우선 국제법을 마무리할 요량으로 먼저 손을 대었다. 일단 UN헌장 등 주요 조약의 조문을 정독하고, 문제집을 읽어 보았다. 또 전과목에 걸쳐 모든 고시잡지에 나온 예상문제와 논단을 지난 3~4년치에 걸쳐 복사를 하고, 내 나름대로의 기준에 의해 분류·재배열하였다. 이 기준이란 출제가능성과 교과서의 체계에 맞춘 것이다. 마지막 정리에 있어서 고시잡지의 예상문제와 답

안은 많은 도움이 되었다.

서울에 다시 올라온 이후 위에 말한 group과 다시 만나 경제학에 대해 모의시험 형식의 study를 했다. 실제와 같은 상황을 만들어 2시간 동안 답안을 작성하는 것으로 시간 안배와 쓸 내용을 간추리는 답안작성 요령에 대한 연습이었다.

시험이 다가올수록 마음이 조급해져 무슨 책이든지 손에 들면 하루에 다 보아야 마음이 안정되었으며, 이에 따른 심한 압박감과 불안감에 가끔씩 술도 마시고 자야할 정도였다. 이러다 보니 시험엔 자신이 없고 1년 정도 공부하면 확실히 자신이 있겠다는 생각만 자꾸 들었다.

나는 소위 sub-note를 작성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예상문제를 만들어 모범답안을 미리 만들어 본 것도 기억에 없다. 나름대로 교과서에 밑줄을 그으며 책 전체를 하나의 sub-note로 생각하고 전체내용을 머릿속에 정리해 두고자 노력하는 편이었다. 편견없이 독서하고 저자가 말하려는 포인트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이해를 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다보니 시험이 임박해서는 속독으로 책 전체를 빨리 훑어보아야 된다는 부담감과, 가시적인 정리가 없었기 때문에 불안감이 더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나름대로는 어떤 유형의 문제에도 유연히 대처하기 위해 그런 방법을 택하였다. 물론 게으름이 주요 원인이겠지만, 예상문제를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 공부하게 되면 특이한 문제에 전혀 손쓸 수 없을 위험성도 있고, 오히려 이러한 고정관념에 빠지게 되면 약간의 변형된 문제에 대해서도 논점을 정확히 찾아 묻고자 하는 내용에 충실히 쓸 수 없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번 시험문제에서도 예상문제로 짚어서 해결한 문제보다 전체적인 응용능력 내지 사고를 요하는 문제가 있었고, 또 특별한 사항의 질문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이해의 구도 속에서 체계적으로 풀어 나갔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얻지 않았나 생각된다. 답안작성은 2시간의 주어진 시간 동안 작성되어지는 하나의 예술품이요, 주어진 문제에 대한 자신의 머리로 여과된 자기의 목소리를 내는 지식의 기록이다. 따라서 천편일률적 문제의식 없는 답안은 무언가 힘이 없고 덜 매력적이지 않을까 생각된다. 더욱이 외무고시는 우리 사회의 현안인 시사적 문제들이 대부분 출제되고 이의 인식에 있어서 수험자의 분석능력과 해결방안의 제시가 얼마나 타당성을 갖는가에 주안점을 두지 않나 감히 생각해 본다.

어쨌든 시간은 흘러 제24회 2차 시험일이 되었고, 장소는 독점전철역 근처에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 서울지역학습관이었다. 제23회 시험장소와 같은 곳이었다.

첫째날은 국민윤리와 영어 두 과목이었다. 국민윤리 문제는 '유교사상과 민주주의와의 관계가 큰 문제, '정치적 진보주의와 보수주의의 장단점', '현대사회의 인간소외문제'가 약속형 문제로 출제되었다. 큰 문제는 한국 현대사의 파행적 진행과 이에 대한 극복방안으로써의 전통윤리의 창조적 계승발전의 중요성을 서론 부분에, 유교사상의 내용과 민주주의 원리는 본문에서 설명하고, 결론 부분에서 유교의 인본주의내지 민본주의 사상이 민주주의 원리와 상통되는 점을 부각시켜 전통사상 계승발전과 새로운 국민윤리의 정립을 재강조하여 결론지었다. 그리고 나니 시간이 40분 정도 밖에 남아 있지 않았다. 가장 우려했던 시간안배의



실패를 첫시간부터 저지르고 말았던 것이다. 다급한 마음에 보다 익숙한 문제인 세 번째 인간소외의 문제부터 손을 댔다. 현대사회의 특징과 한국사회의 특징, 인간소외의 의미를 쓰고 결론 부분에서 이의 극복방안으로 우리 전통사상을 계승발전시켜 새로운 윤리는 세워야 한다고 맺었다. 나머지 10여분 남은 시간 동안 정치적 진보주의와 보수주의의 발생 배경, 주요한 차이점을 기술하고 사회변화·변혁에 있어서 두 주의가 갖는 의미를 적은 후 현 우리 정치상황에서의 보수와 혁신구도의 설명과 이 두 사상의 조화 속에서 우리 사회가 안정적이고 바람직한 발전을 해나갈 것이라고 급히 써서 한 번 재검토도 하지 못한 채 뺏기다시피 답안지를 제출하였다. 절제있게 정리하여 내용을 압축적으로 적을 필요성과 시간안배의 중요성을 새삼 강조하고 싶다. 또한 궁지의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의 노력으로 끝까지 써낸다면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이후 점수로 확인하였다(80,66).

두 번째 영어 시간은 작년과 달리 시사적인 내용이 아니었다. 양도 작년보다 더 많은 것 같았다. 너무 시사적인 정치·외교·군사·경제 문제에만 치중하지 말고, 문화적인 내용의 글도 많이 읽고 준비해 둘 필요가 있겠다(81,00).

둘째날은 국제법과 경제학이었다. 첫날 시험을 마치고 국제법 교과서의 목차와 중요 부분을 한 번 읽고 일찌감치 잠자리에 들었다. 국제법 큰 문제는 '외국인의 권리침해 구제방법'이었는데, 논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기가 약간 애매했다. 나는 국가에 의한 구제방법인 외교적 보호권위주로 쓰기로 하고, 그 다음 개인에 의한 구제방법을 덧붙이기로 하였다. 외교적 보호권에 관해서는 평소 눈여겨 기억해 두었던 터라 거의 빠짐없이 서술하였고, 개인에 대한 구제방법으로는 개인의 국제소송권과 관련하여 국제포획법원(1907년), 중미사법법원(1907년), 1차 세계대전 이후의 혼합중재법원, 1922년 상부실레리아에 관한 독일·폴란드 협정을 간략히 소개하는 정도와 국제조직에 대한 청원권, 즉 신탁통치 주민의 UN에 대한 청원권, 유럽인권협약상 인권위원회에 대한 청원권, ILO에 대한 노동자 단체의 신고권 등을 소개하고, 항을 바꾸어 1965년의 국가와 타 국민과의 투자분쟁해결에 관한 협약 내용과 그 의의 및 외교적 보호권과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약술형 문제는 '내국민대우조항과 최혜국민대우조항의 차이점'을 비교하는 문제와 '국가의 UN가입'문제였다.

약술형 첫 번째 문제는 기본적인 차이점은 알았지만 그 이상 답안지를 메꾸는 것이 난감하였다. 기본적인 차이점을 쓰고, 최혜국민대우조항에 있어서 조약의 제3자적 효력과 관련된 내용을 덧붙여 설명했다. 두 번째 문제는 비교적 쓰기가 편했는데, UN가입의 의의와 UN헌장 제4조 1항과 2항의 해석, 가입조건 문제점 및 완화를 서술하는 것이 주내용이었다. 구체적인 법적 접근이 필요하리라 생각되었다. 예컨대 UN헌장의 조문을 직접 인용하여 쓴 것이 조금 호감을 받지 않았나 싶다(69,33점).

두 번째 과목은 경제학이었다. 비교적 준비는 많이 한 편이었는데 점수는 가장 낮았다. 제1문은 '국민경제안정화를 위한 금융·재정정책의 유효성과 한계점'을 논하는 것이었고, 제2문 약술형은 A.Smith의 '보이지 않는 손'과 '교역조건 개념 및 이중생산요소 교역조건'이었다. 마지막 문제는 교역조건 개념만 설명하는데 그치고 거의 놓친 문제였다. '보이지 않는

손'에 관해서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대변되는 정치와 손의 기능, 즉 시장메카니즘의 매개 변수적 기능을 설명하고 보이지 않는 손이 해결해 줄 수 없는 면, 즉 시장기구의 한계를 설명해 주는 것이 골자였다(53.66점).

그 다음날은 3·1절 공휴일로 하루 쉬고, 3월 2일 국제정치학과 독어를 보았는데, 국제정치학은 제1문이 통합이론으로 'EC통합에 대한 설명'이었고, 제2문 약속형은 '국제체제 변화에 따른 한·미 관계의 변화', 'UN의 이증거부권'문제였다. 제1문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EC 통합문제를 서론에서 언급하고, 통합이론을 본문에서 먼저 설명한 후 EC통합의 역사적 전개과정과 현 단계 문제점과 중요 이슈를 지적하고 결론에서는 국제정치의 근본적인 특징인 상위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병렬적이고 분권적인 주권을 가진 민족국가의 속성을 지적하면서 EC통합의 한계점도 아울러 지적하는 결론을 맺었다. 제2문 첫 번째 문제는 한국 외교사적인 문제로 인식하여 1882년 한·미조약 체결 이전의 신미양요로부터 한일합방 전과 해방 이후의 관계의 특징 비교와 해방 이후 냉전과 화해라는 세계정치의 변화에 따른 시대구분과 한·미관계의 변화를 서술하였다. 두 번째 문제는 국제법적인 시각과 국제정치적인 시각을 적당히 혼합하여 기술한 편이었다(61.66점).

두 번째 과목인 독어는 작년에 비해 쉬운 편이었으며, 문제가 너무 평이해서 오히려 부담이 되었다. 작문에 있어 독어적인 표현법을 쓰려고 몇 가지 대안을 작성하여 선택하는 식의 노력을 하였다(85.66점).

6과목을 치르고 난 후 약간의 합격가능성을 예감하고 곧바로 독서실로 가 민법총칙 문제집을 정독하여 밤 2시 정도까지 일독하였다. 법과목이기 때문에 불안하기도 하였지만, 웬만큼 민법총칙을 읽어 보았다는 것을 위로삼아 시험에 임하였다. 그러나 가장 소홀히 했던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마지막 약속형 문제로 두루마리가 퍼져자 앞이 캄캄했다. 내가 본 문제집에는 이 주제를 다루고 있지 않았고, 평소에 이 문제를 중시하면서도 마지막에 가서는 문제집 위주로만 보았기 때문이었다. 체력도 거의 한계점에 온 것 같았다. 지난 밤 마음 편히 잠을 자지 못한 것과 그간의 피로가 일시에 내려 앉는 것 같았다. 머리는 멍하고 의욕이 땅에 떨어진 상태에서 적당히 적어내고 1분이라도 빨리 밖으로 나가고 싶은 충동이 자꾸만 들었다. 결국 초안작성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두 시간을 간신히 때우고 미련없이 답안지를 제출하고 시험장을 나왔다(59.66점).

### 3. 3차시험(제24회 외무고시)

3차 면접시험은 4월 12일 정부 제1청사 19층 회의실에서 있었다. 면접시험은 개별면접과 집단토론의 두 가지 형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외무고시에 있어서 3차시험의 비중은 타 고시에 비해 높다. 우선 3차 면접시험에서 고배를 마셔야 할 수험생의 수가 많고 비교적 성적과 문관하게 당락여부를 결정짓는 것으로 알고 있다.

24회 외시의 경우 3조로 조가 편성되었고, 각 조를 7명 정도의 A그룹과 B그룹 두 그룹으로 나누어 모두 6개 그룹이 구성되었다. 각 조에는 외무부에서 한 분, 대학교수님 한 분으로 면접관이 나오셨다. 각 조는 이들 두 면접관에게 개별면접을 치르고 오후에 각 그룹

별로 집단토론을 하였다. 나의 경우 개별면접시 외교관이 되려고 하는 공기, 한반도 안정 보장책, 외교정책의 결정요인, 우리 나라 외교정책의 결정요인, 기타 국제정치의 기본개념의 구별을 질문받았고, 집단토론시 '미군철수와 한반도 안전보장'이라는 주제하의 우리말 토론과 '북방외교정책'을 영어로 설명하라는 주문을 받았다. 영어로 답변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한 것 같다.

나의 경우 2차시험 발표 후, 함께 합격한 외교학과 동기 및 후배들과 3차시험 대비로 몇몇 자료를 준비하고 영어답변 준비를 했었는데 무척 유용하였다.

#### IV. 몇 가지 제언

첫째, 이른바 public mind를 가지고 모든 이슈에 접하는 것이 좋겠다.

둘째, 고시는 자기 자신과의 긴 마라톤이 아닌가 싶다. 따라서 1~2년 장기계획에 맞춰 꾸준히 하는 것이 좋을 듯 싶다. 충분한 휴식과 수면, 기분전환으로 장기 레이스를 뛰는 편이 유리한 듯하다.

셋째, 시사적인 주요 이슈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자기가 정책입안자내지 정책결정자일 경우 이렇게 처리하겠다는 식의 사고도 유용하리라 본다.

넷째, 많은 교재를 읽어 보기를 권하고 싶다.

다섯째, 많은 토의를 해 보는 것이 유용할 것 같다.

여섯째, 외국어 공부는 매일 살아있는 실제적인 내용과 표현법, 단어들을 익히는 것이 좋을 듯 싶다. 영자신문과 영자주간지 읽기를 권한다.

일곱째, 국제법은 조약문을 읽어 보아 구체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좋을 듯 싶다.

여덟째, flexible한 사고로 한 권의 책을 이해 위주로 전체 체계를 잡아 read through하는 방법을 권하고 싶다.

아홉째, 무엇보다 확고한 신념과 자신감이 중요한 것 같다.

참고로, 2차 준비서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V. 맺는말

독일 속담에 “End gut, alles gut”이라는 말이 있다. 끝이 좋으면 다 좋다는 뜻이다. 개인적으로 이 말을 평소 좋아했지만, 운 좋은 결과에 의해서 모든 과정들이 미화되지만 않았나 적잖이 염려된다. 강철같은 의지력으로 이 밤도 젊음을 불태우고 계실 동도제현의 좋은 끝맺음을 하루 빨리 성취하시기를 기원하는 마음 간절하다.

애초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글을 쓰고자 했으나 워낙 무던 글솜씨와 천박한 공부, 거기애다 촉박한 시간으로 소기의 목적을 못이루고 독자제현의 귀중한 시간만 뺏은 것 같아 송구할 따름이다. 다만 어느 합격생의 그간의 경위를 봄으로써 약간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감사하겠다.